

# 사설

## 태고종 새 총무원장의 과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제2의 종단인 태고종의 신임 총무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다졌다. 개혁불사로 바뀐 조계종과는 달리 태고종은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계속해 온 것이 사실이다. 내부적인 역량을 키우고 힘을 축적시킴으로써 종단의 내실화를 기해 온 결과인가? 아니면 침체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는가?

이제 인곡스님의 총무원장 취임을 계기로 교화종단, 대승종단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풀어나가기로 제시한다.

첫째, 종단의 모든 제도와 조직을 시대에 부합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 구태의연한 중현, 중법을 새롭게 정비하고, 정법에 의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좀 더 열린 종단으로서 명실공히 사부대중의 의사가 종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부패하고 병들어 있는 곳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려내는 자체개혁을 통한 몸꾸림이 필요하다. 종단의 폐쇄적 운영, 총무원 중심의 독단적 운영, 재정적 불투명성 등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민주성, 자주성을 바탕으로 둔 조직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둘째,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조계종과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여 새로운 한민족 불교공동체를 건설하길 바란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수행도량인 절을 놓고 대립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고질적인 조계·태고 양대종단의 사찰분규를 하루속히 종식시키는데 지도력을 발휘하자. 원력을 세워 실천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제 그만 절싸움처럼 비치는 분규를 끝내고 모든 수행자와 신도들이 안심하고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새 총무원장 인곡스님도 이에 관하여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니 서광이 비치는 듯하다. 양 종단이 진정한 부처님정신으로 돌아가 손에 손을 맞잡고, 대화와 이해

로 모든 매듭을 풀기 바란다.

셋째, 나라와 민족, 사회와 역사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보살도를 실천하자. 사회와 대중을 교화하고, 보살정신·대승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불교수행은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기르는 공부라고 하는 의미를 새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세속의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사상이 불교계와 수행자들에게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불평등문제, 민족분단문제, 환경문제, 비인간화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한다. 동체대비의 보살정신을 구현하고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존·공영·공생의 길을 닦아야 할 것이다.

넷째,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의 설립 등 회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 속에서 대중을 이끌어 갈 교역자와 지도자 양성을 위한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의 설립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필요한 인재를 부처님사상에 바탕을 두어 길러내는 불사가 중요하다.

다섯째, 태고종의 특징을 살려 재정적인 물적 토대를 좀 더 견고히 해야 한다. 경영진단과 평가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하여 재정을 재정비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소유를 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물적 구조의 견고성이 요구된다. 종단의 재정적 뒷받침이 확고할 때 각종 불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불국정토를 앞당길 수 있다.

이런 태고종의 새 총무원장 취임을 계기로 몇몇 분규사찰이 안고있는 조계종과의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어 화합된 모습으로 한국 불교중흥의 깃발을 힘차게 펼치길 바란다.

# 열린마당

## 방생 이대로 좋은가

### '자연과 인간은 하나' 기복 탈피하자

#### 법현스님 (前 태고종 총무원장)

불교의 기본사상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될 수 없다는 불이(不二)의 정신이다. 방생도 일핏 보면 더 가지고 있는 존재(인간)가 덜 가진 미물(물고기 등)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상 모든 존재가 수없이 많은 그물코처럼 중중무진의 관계속에 놓여있어 물고기나 나무, 풀 등 미물까지도 내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을 지닌 한 몸(同體)이다. 따라서 방생은 시혜가 아닌 내 몸에 대한 치료행위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생의 불교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단순히 물고기만 넣어주고 주위까지 어지러운 채 북이나 밭도둑 방치한 스님이나 신도.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는 의욕이 앞서 경전과 전통 속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을 금지했다가 방생을 바꾼 단체 모두 방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방생은 불이(不二)의 정신을 실현하고 환경을 보호하

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적극 실천해야 한다. 다만 이제까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불교계와 환경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생태계지도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할 어종 및 그 지역에 적합한 방생방법 등을 제시해서 환경도 살리고 인성도 살리는 본래 의미의 방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방생행위의 신앙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법회장 준비, 의식의 간소화 및 한글화, 방생장도 가는 도중과 돌아오는 차안의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연구해야 한다.



### '어종별 서식지등 생태계 정보 필요'

#### 문태영 (고신대 교수·생물학)

방생을 생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연에 새로운 또는 부가적인 생물을 도입하는 실제적인 인간간섭으로 그 결과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방생과 생태학적인 지식의 결합이 요구된다.

보존생물학적으로 방생이 바람직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한 유형은, 멸종위기의 종을 인위적으로 증식시켜 재도입하는 경우이다. 남한에는 약 145종의 민물고기가 살고 있다. 이 가운데 약 30여종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종류들에 대한 관심이 방생시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종의 집단이 감소되는 초기에 적절한 수의 개체들을 인공사육하여 재도입한다면 일단 쇠약해지는 유전자군을 보완하여 예상치 못한 급격한 지역적 멸종을 지연시키는 예방조치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멸종요인이 외적인 것이라면 서식지를 보호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조사가 전국적으로 수행되어 복원시킬 대상과 지역에 대한 정보가 시급히 확보되어야 한다. 즉, 생물기록센터나 생물자원보존관 등이 생겨 그 역할을 해주고 방생시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는 등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불교계는 방생이 국토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명의 삶터로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과학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봄은 방생의 계절. 올해도 방생장으로 향하는 대형버스의 행렬이 이어질 것이다. 방생은 말 그대로 억압된 생명을 해방시켜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전에서 방생의 뜻과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방생은 오히려 생명파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생명존중 사상의 실천이라는 본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참다운 방생은 무엇인가 알아본다. <편집자 주>

**보광(동국대 교수·선학과)**

불교의식 중에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의식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생의식(放生儀式)이다. 교리적인 근거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불살생계(不殺生戒)에 있다. 소승불교에서는 소극적인 불살생을 말하고 있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이 사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 십선계(十善戒) 중 하나인 방생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명경)에서는 "불자여! 자비심으로 방생업(放生業)을 행하여라. 그들이 지금은 어류이지만 모두 전생의 너의 부모이리라"고 한다.

그러므로 방생은 적극적인 대승보살의 실천행이며, 깨달음의 지름길이다. 이러한 방생사상이 <공양명경

### 불살생계 중시 생명존중 자비 가르쳐 삼국시대 때 시작... 천도의식도 함께

(金光明經)에서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중국의 천태지자대사(天台智者大師)는 방생지(放生池)까지 만들어 신앙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방생법회가 있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면, 599년 신라 법흥왕이 살생을 금지하는 명을 내리고 민가에서 기르는 남질승을 놓아주게 하고 고기잡는 도구를 불태우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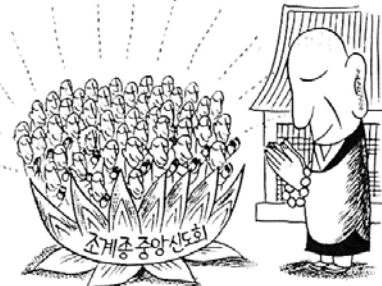
생명을 살려준다는 것은 태고큰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방생의식은 어류나 조류 등 대상물에게 삼귀의와 오계를 주는 수계(水계)와 보리심을 발하게 하는 법문과 이미 죽은 영혼들을 천도하는 의식이 함께 행해진다. 이는 모든 중생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생명존중사상이 깔려있다.

그러나 의식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시정하면 되는 것이다.

최근 문화체육부는 불교계에 '방생법회 관련 협조요청'을 했다. 마치 불교의 방생의식을 환경과파괴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방생의식을 좀 더 보완하여 범종단적인 차원에서 여법하게 치루어야 하며,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축제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대 불교 연구소

## 현대만평



어려운 시기에 큰힘을...

**목어**

"세상에 이렇수가..."

불자들은 복장물을 도둑맞은 기림사 불상사전을 차마 볼 수 없어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렸다.

휴과 종으로 만든 불상의 왼쪽 옆구리는 뚫려 있었고 철사가 보였다. 금못은 흉하게 벗겨졌다.

불상은 성물이다. 성물을 겁없이 파손한 자들은 그 업이 얼마나 지중하지 알까 모를까. 만약 사람이 佛寶를 외면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대교왕경)고 했다. 귀의는 못할망정 불상 훼손이리니...

기림사 불상은 성물인 동시에 문화재, 즉 성보다. 문화재에는 조상들의 얼과 숨결이 담겨있다. 문화재는 우리 당대의 것만이 아니다. 자자손손 대물림하면서 그 정신을 전해야 하는 후손들의 몫도 들어있다. 그래서 보존에 만전

을 기해야 한다. 올해는 '문화유산의 해'다. 국민 모두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가꾸자는 취지가 성보도난 앞에서는 무색할 수밖에 없다.

**문화재 도굴·훼손죄**

돈이 되는 일이라면 기계이 양심을 저버리는 이들이 날로 늘어나는 오늘날의 세태. 그래서 'TV쇼 진품명품' 프로그램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잘 지켜야 한다. 불상이 돈으로 보이게 되면 사찰의 문화재급 성보가 날라 날라 없다. 잃어버리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유고 외양간 고친다'지만 불교계는 수없이 성보도난을 당하고도 외양간 고치는 일에 소홀했다.

더구나 사찰의 성보는 예배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이 쉽다. 도난방지에 무방비 상태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불교의 성보는 불교만의 성보가 아니다. 국비이고 세계적인 문화유산도 있다. 물론 1차적인 보존책임은 그 주인인 불교계에 있지만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보존방법·예산 등을 함께 숙의해야 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성보찾기에도 주력하자. 문화재 도굴·훼손범에게는 중벌을 내리려 한다. 지금 당장 '발등의 불'이 아니라고 문화유산의 값을 인식 못하고 그 보존을 뒤고 미루다 보면 우리는 문화재전에서 질지도 모른다. 문화가 국력이라는데 각성하자.

**통신사 통신강원**

통신강원 전문의 불교 공부

- 스님을 위한 전문반
  -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의전과
- 재가불자를 위한 교양반
  - 교리강좌
  - 경전강독
  - 교양의식
  - 교양불교사

문의처 (0346) 68-1957 (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무림리 255

통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 金月雲

# 보 축

##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종 창종 16주년 기념법회

### 국가를 위한 기원대법회 및 제3세 종정 추대와 총무원장 취임법회

新春之節 高堂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 종단에서는 창종 16주년 기념 및 제3세 종정 靈山 一空 猊下 추대법회와 제 5대 총무원장 寶印 輔宇宗사 就任法會를 아래와 같이 봉행케 되었기에 안내 말씀 드립니다.

- 고 문** : 송산, 법목, 법신, 법운, 성운, 원영
- 봉행위원장** : 법륜  
**부위원장** : 성관, 보광, 제관
- 위 원** : 선식, 성도, 체의, 인담, 명허, 선덕, 진성, 성정, 체각, 풍원
- 준비위원장** : 화담  
**부위원장** : 선진, 정관
- 위 원** : 체원, 체도, 보각, 선혜, 묘정, 범수, 체혜, 체선, 선오, 세심, 청정, 현덕, 도혜, 연화, 진각, 진운, 정각, 천일, 보광, 진여, 진안,
- 보성, 법정, 보행, 보운, 진광, 보명, 범공, 진담, 천수, 세정, 원덕, 성욱, 청심, 도암, 혜명, 범행, 광혜, 원광, 일체, 선광, 도광, 정원, 진담, 불선, 범승, 삼매화**
- 위 원** : 이용순, 최길래, 박용희, 원정희, 이인숙, 조금재, 김순혜, 김정애, 성덕화, 보현화, 최영순, 공덕심, 자혜원, 무량심, 묘원심, 안홍진
- 설의위원장** : 운경  
**부위원장** : 성인, 무송
- 위 원** : 지화, 옥련, 경담, 명선, 정화, 진목, 진월, 진향, 호일, 호법, 호선, 호산, 호인, 지운, 지성, 진선
- 재무위원회 위원장** : 대월  
**부위원장** : 성도, 체인
- 후원회 위원장** : 정광  
**부위원장** : 원진, 체의
- 일 시 : 불기 2541년 3월 27일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호텔 케피탈